



고용자들의 정신건강비용과 홍콩 사례

안소영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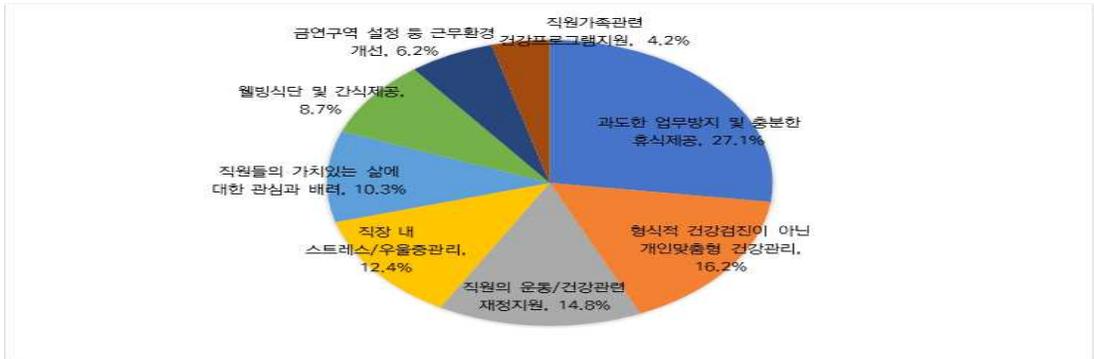
홍콩에서 서비스 전문직 고용자들에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관련 비용은 연 55억~124억 HKD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관리 개선책으로 적절한 교육, 기업의 직원복지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제시됨. 현재 한국은 직장생활 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는 미흡함. 따라서 정신건강 관련 고용주비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최근 홍콩의 사례는 의미가 큼

-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 및 직장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나라에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실제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는 미흡함
 - 세계 보건기구(WHO)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은 삶의 어떤 시점에서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 장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¹⁾
 - 2017년 기준 한국 일반국민이 직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10점 만점 기준 7.91점을 기록한 반면, 직원의 기업 평가점수는 5.95로 상대적으로 낮았음²⁾
 - 직원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는 직장 내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리(12.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1) WHO(2001), "Mental disorders affect one in four people"

2) 서울대학교병원 보도자료(2017), "국민 27%, 과도한 업무 직원 건강 해쳐"

〈그림 1〉 직원의 건강관리 관련 문제점(%) (일반국민=1,200,%)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보도자료(2017), “국민 27%, 과도한 업무 직원 건강 해쳐”

■ CMHA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분류방식은 직접·간접비용으로 나누는 방식과 의도적·비의도적비용으로 나누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표 1-1), (표 1-2) 참조

- 정신건강 관련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주의 비용으로 웰빙프로그램비용(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 결근비용⁴⁾, 프리젠티즘비용⁵⁾, 이직비용⁶⁾, 기회비용(수입의 감소), 팀 생산성 저하로 인한 비용, 기타 무형비용(평판의 손상)이 존재함

〈표 1-1〉 정신건강 관련 고용주 비용의 분류체계 1

직접비용 (Visible costs)	직간접비용	간접비용 (Hidden costs)
웰빙프로그램비용(e.g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 결근비용	프리젠티즘(Presenteeism) 비용, 이직비용	기회비용(e.g 수입의 감소), 팀 생산성 저하로 인한 비용, 기타 무형비용(평판손상)

〈표 1-2〉 정신건강 관련 고용주 비용의 분류체계 2

의도적(계획적) 비용 (Intentional costs)	비의도적(비계획적) 비용 (Unintentional costs)	기타 비의도적(비계획적) 비용 (Other unintentional costs)
웰빙프로그램비용(e.g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	결근비용, 프리젠티즘(Presenteeism) 비용, 이직비용	기회비용(e.g 수입의 감소), 팀 생산성 저하로 인한 비용, 기타 무형비용(평판손상)

자료: City Mental Health Alliance & Oliver Wyman(2019), “The cost of mental ill health for employers in Hong Kong”

- 3) CMHA는 City Mental Health Alliance의 약어로 시 정신건강연맹으로 해석될 수 있음
- 4) 정신질환을 경험한 고용자들이 매해 4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 5) 회사 출근은 했지만 컨디션이 정상적이 못한 경우 업무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져 발생하게 되는 비용. 해당 조사에 의하면 64%의 직원이 정신적 문제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출근함
- 6) 매 이직 당 6-9개월 치 고용자를 위한 연가보상비용

■ 최근 연구에 따르면⁷⁾ 홍콩의 서비스 전문직 고용자에게서 발생한 정신문제 관련 비용은 연 55억~124억 HKD⁸⁾을 차지함

- 정신건강 관련 고용주 예상비용의 세부항목에는 결근비용, 프리젠티즘비용, 이직비용, 웰빙프로그램 비용, 기타비용이 포함됨(〈표 2〉 참조)

〈표 2〉 홍콩의 정신건강 관련 고용주 예상비용 세부항목

비용의 종류	예상 비용
결근(Absenteeism)비용	4500만-1억8천만 HKD
프리젠티즘(Presenteeism) 비용	47억-100억 HKD
이직비용	7-22억 HKD
기타비용	기타비용에는 1. 팀 생산성 저하 2. 기회비용 3. 평판의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총 비용을 포함
웰빙프로그램비용 (e.g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	1억3천만 HKD
계	55억~124억 HKD

자료: City Mental Health Alliance & Oliver Wyman(2019), "The cost of mental ill health for employers in Hong Kong"

■ 또한 홍콩의 직장 내 정신건강증진을 저해하고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불충분한 정보와 기업의 직원복지 지원, 사회적 낙인 현상이 지적되었음⁹⁾

- 설문 응답자의 69%는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함
-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 중 8%만이 회사에 직원 복지를 지원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함
-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 중 36%만이 직장 누군가에게 해당 사실을 밝힌 경험이 있음.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는 정신적 고통을 드러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낙인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 홍콩 서비스 전문직 고용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해결책으로 기업의 적절한 정보제공, 직원복지 지원,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제시됨. 한국은 위 사례를 참고하여 직장 내 정신건강관리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kiqi**

7) City Mental Health Alliance & Oliver Wyman(2019), "The cost of mental ill health for employers in Hong Kong"

8) HKD는 홍콩 화폐단위로, 홍콩 1달러(1 HKD)는 한화 145원가량에 해당함 (2019년 4월 기준)

9) City Mental Health Alliance & Oliver Wyman(2019),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survey of Hong Kong employees in professional services firms"